

● '99.11.02 가정집 화재

한밤중에 미용실에 딸린 방에서 불이 나 잠자던 자매 등 일가족 4명이 숨졌다.

2일 02:00시경 전북 군산시의 한 미용실에 딸린 방에서 불이나 잠자던 미용실 주인 김씨의 딸과 아들 등 일가족 4명이 연기에 질식사 숨지거나 불에 타 숨졌다.

불은 건물내부 60여평을 태우고 1시간여만에 진화됐으며 미용실과 가재도구 등을 태워 5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 '99.11.19 할인마트 화재

19일 01:00시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의 한 할인마트에서 불이 나 조립식 건물 80여평과 진열된 상품 등을 태워 8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정)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만에 꺼졌다.

경찰은 이 건물 뒤편에 부착된 배전판이 심하게 탄 점으로 미뤄 전기합선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 '99.11.22 패션쇼장 가스폭발

19일 14:25분쯤 부산 진구 롯데백화점 부산점

정문 앞 패션쇼장에서 질소가스가 폭발, 이벤트사 특수효과 담당 직원 김모 씨가 숨지고 모델 1명과 관람객 1명이 부상했다.

사고는 질소가스를 이용해 패션쇼 무대 위로 종이조각을 날리는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 가스에 질소가스를 주입하다 발생했다. 경찰은 가스에 파편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행사 진행을 맡았던 이벤트사 대표와 백화점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99.12.03 열차 화재

달리던 열차 객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열차운행이 정지되고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3일 09:10분께 서울역을 출발, 노량진역부근을 지나던 서울발 목포행 새마을호 열차 5호 객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5호 객실 전체와 4, 6호 객실 일부를 태우고 20여분만에 진화됐다.

6호 객실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은 "열차가 용산역을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옆객실쪽에서 연기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불이 나자 열차는 노량진역에서 일시정지, 5호 객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명을 비롯, 전체 8량의 객실에 타고 있던 132명의 승객들은 모두 대피

했다.

● '99.12.06 어선 화재

6일 04:10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6마일 해상에서 오징어 잡이를 하던 울릉항 소속 207 유정호 기관실에서 집어등 과부화로 화재가 발생, 선실내부를 전소시켜 2억여원(경찰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화재가 발생한 뒤 타고 있던 선장 이씨를 비롯한 선원 5명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선적의 중량호(135t급)로 긴급 대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포항해경은 화재신고를 받고 경비정 등 3척을 현장에 급파했으나 소방정이 아닌데다 화재 진화장비가 부족해 불이 붙은 선박을 약 30분간 포항송도 내항으로 예인, 포항소방서 소방차량 2대가 출동해 화재를 진화했다.

● '99.12.15 섬유공장 화재

14일 19:50분께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대한 섬유 야적장에서 불이 나 공면 1백여 톤을 태워 2억여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 만에 진화됐다.

경비원 이모 씨는 “야간 근무중 야적장의 가공면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 소화기로 끄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주변에 특이한 화인이 없고 철로변에 접해 있어 열차 승객이 버린 담뱃불이 야적장 천막에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 '99.12.18 해운대 산불

지난달 28일 이후 부산·경남지역에 21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18일 15:3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 동부산대학 뒤쪽 운봉산 6부 능선에서 불이 나 임야 3ha를 태우고 21:00께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헬기 4대와 공무원 6백여명이 동원돼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날이 어두워진데다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불길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화재지역 주변에 민가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등산로 주변에서 처음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등산객의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 '99.11.07 인도 화재

인도의 4개 도시에서 지난 6일 밤 화재가 발생해 최소한 55명이 사망했다고 인도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인도의 UNI 통신은 지난 6일 밤 하리아나주 소네파트시의 한 시장에 있는 폭죽판매점에서 불이 나 인근 17개의 상점이 전소됐다.

이 과정에서 다음날 열리는 힌두교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 나온 많은 인파가 피해를 입어 최소한 45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경찰은 전기누전을 화재의 원인으로 보고 조사중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또 이날 편잡주의 암리차르시 및 잘란다르시, 우타르 프레다시주의 가지아바드시에서도 유사한 화재가 발생해 각각 3명과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㉞